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 김태인 청년, 김예빈 청년, 김대현 학생
2. 오늘은 '전교인 여름수련회'로 모입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점심은 강숙여 권사님, 추성철 집사님 가정에서 참치회덮밥으로 섬깁니다.
3. 오늘 주일낮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해 주신 안병만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4. 다음 주일낮예배 기도담당은 오진석 집사님입니다. 오후찬양예배는 유숙정 권사님입니다.
5. 담임목사님의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임시당회가 8월 18일(토)에 있으며, 이를 결정하기 위한 공동의회가 8월 26일(주일) 점심식사 후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6. 예배 후 친교실에서 맛있는 점심과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친교 나누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8월 5일	8월 12일	8월 19일	8월 26일
예배기도(오전)		김윤식 장로	신태식 장로	오진석 집사	권용기 집사
예배기도(오후)		정진숙 권사	전교인수련회	유숙정 권사	김경미 권사
주일식사담당		한나 목장 (이영선 권사)	참치회덮밥 (이영선 권사)	에스더 목장 (오효근 권사)	아가페 목장 (최윤정 권사)
토요일청소		주사랑목장 (8/11)	갈렙·아론목장 (8/18)	에덴목장 (8/25)	둘로스목장 (9/1)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하늘문교회 2020비전을 위해서
2. 남여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병환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남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쉼터.(국내) 사역자를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다같이
*경배찬송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191장 (통 427장)	다같이
대표기도	신태식 장로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엡 5:15-21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충분히 임하소서! 성령님’	안병만 목사

친교와 축복

교 회 소 식	다	같	이
* 결 단 송 620장	다	같	이
* 축 도	안병만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
달
의
말
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찬양예배는 ‘전교인 여름수련회’로 모입니다.

2018

하늘문 교회

여름수련회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허영진 목사
요 8:48-59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낳는다’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기도를 향한 과녁’(45)

새벽기도회 새벽 5:30 시편 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시 83:13-18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벌써 가을이 보인다’

오랜 폭염으로 인해 도처에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인간은 한 없이 연약하다. 주어진 삶의 현실 또한 각박하기만 하다. 그래서 인간은 평생을 살면서 다양한 환란과 역경을 만난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 운명, 즉 팔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운명도 실패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환경과 역경을 시련(試鍊)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자의 생각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그런 역경과 환란을 실패가 아니라 시련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병든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서 느꼈던 암울함이 얼마나 자신의 영혼과 삶을 망가뜨렸는지 깨닫게 된다.

내 주변에는 시련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그 시련은 축복이라고 설득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련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주어지는 환란과 역경을 시련이라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런 역경, 환란의 의미보다는 그런 것들이 주는 고통, 불편함, 짜증, 분노를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련의 의미를 실패로 과장하기도 하고, 시련을 죄의 대가라고 판단하여 자기 학대를 하기도 하며, 시련은 약자가 당하는 일종의 형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힘든 과정을 믿음으로 견디고 나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폭염이라는 듣기만 해도 짜증나는 무더위도 이제 우리 곁을 떠나려 하고 있다. 밤이 되면 선선한 바람이 분다는 것이 그 징조다. 바람은 항상 불지만 선선한 바람은 한 여름과 이별하는 정류장이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온다. 그러나 가을이 오고서야 가을을 느끼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이런 어리석음은 세월을 낭비하게 만든다. 징조가 보이면 바로 징조 이후의 상황을 바로 느끼는 것이 지혜다. 내 눈에는 벌써 가을이 보인다. 누군들 시련이 없을까 보냐. 바라기는 내가 느끼는 선선한 바람을 통해 이미 우리 곁에 와있는 가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류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다. 당신은 지금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시련을 겪고 있을 뿐이라고.

Written by 허영진